

우여곡절 끝 '탄력근로제' 합의...단위기간 6개월로 확대

경사노위서 노사 합의...노동자 임금보전 방안도 마련 3개월 이상 탄력근로제는 '주 단위'간 연속휴식 의무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한다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합의 결과가 19일 도출됐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해온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사노위 대화 의실에서 9차 전체회의를 하고 합의문을 공개했다. 노동시간 개선위 이철수 위원장이 합의문을 낭독했다.

이 위원장은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영계는 작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에 들어가지 주 52시간제를 지키려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시간 개선위의 합의 결과는 이를 반영한 것이다.

노동시간 개선위 합의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임금 감소를 막을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노동계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이 위원장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며 "아울러 노·사·정은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어 "탄력근로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한다"며 "이 경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는 데 예외가 있음을 고려해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탄력근로제를 노·사 서면합의로 도입하도록 해 도입 요건을 엄격히 하되, 단위 기



19일 오전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철수 노동시간 개선위원장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 관련 전체회의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 3개월 이상 탄력근로제의 경우 근로시간을 일 단위 대신 주 단위로 정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재량권을 확대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서면 합의시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단위 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

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탄력근로제 도입에 따른 노동자 임금 감소 등을 막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1주 법정 노동시간 한도가 늘어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노동시간이 줄고 이는 가산 수당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이 위원장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 저하방지를 위한 보전 수단, 할증 등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경사노위가 진행해온 다양한 사회적 대화의 사실상

첫 결과물이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에서는 처음이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구체적인 수준에 노사 합의한 사례는 드물 것"이라며 "많이 고생하고 어려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름값 하락 끝...석달만에 상승 전환

15일부터 오름세...유류세 인하 '약발' 다하고 국제유가 상승 영향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 실행 이후 약 3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전국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업계와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전체 주유소의 보통휘발유 판매가격의 합을 전체 주유소 개수로 나눈 값인 일간 기준 평균판매가격이 지난 15일 이후 연이어 상승했다.

지난 15일 평균판매가격은 1천342.24원이었으나 16일에는 1천342.55원으로 0.31원 상승했고, 17일에는 여기서 다시 0.07원 올라간 1천342.62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18일에도 전날 대비 다시 0.13원 상승해 1천342.75원까지 올랐다.

지난해 11월 6일 정부가 유류세 인하 정책을 시행한 이후, 총 4차례 일간 기준으

로 보통휘발유 평균판매가격이 전일 대비 올라간 사례는 있었다.

다만 그 상승 폭은 0.1원 이하로 사실상 보험세로 봐도 무방할 수준이었고, 상승세가 하루 이상 이어지지 않아 추세로 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지난 15일 이후 상황은 상승 폭이 전보다 크고 3영업일째 상승세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기름값 하락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작년 11월 첫째 주 1천660.37원이었던 평균판매가격은 12월 넷째 주 기준으로 1천397.39원으로 떨어지며 1천300원대에 진입했다.

그러나 올해 1천300원대에 들어선 이후로는 낙폭이 점차 작아졌고 지난달 말 이후로는 전주 대비 낙폭이 1원대 수준에 그

치는 상태다.

유류세 인하 효과가 사실상 소진됐고, 무엇보다 국제유가가 지난달부터 계속 오르고 있는 점이 국내 휘발유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국제휘발유(92옥탄가 기준) 가격은 작년 12월 넷째 주 배럴당 53.09 달러에서 올해 들어 상승세를 보여 이달 둘째 주 기준 62.82달러까지 올랐다.

여기에 최근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석유를 비롯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된 점도 유가 상승의 원인이 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간 기준 동향을 고려할 때 주간 기준으로도 이르면 이번 주, 또는 다음 주에 휘발유값 상승 전환이 나타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정부부처·광역지자체, 인권경영 도입

공권력 인권침해 방지...산하 공공기관, 인권위 권고 수용

정부 부처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본격적으로 인권경영에 나선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8월 산하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지원, 공공기관 인권경영 평가지표 신설·확대를 권고한 결과 30개 정부 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향후 인권경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기관별로 인권경영 선언,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인권 영향평가 등을 추진한다.

인권경영이란 내부 구성원의 인권뿐만 아니라 기업의 활동과 관련된 공급망, 이해관계자, 소비자 등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인권을 기본적 요소로 고려하는 경영 원칙을 뜻한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은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수립한 바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500인 이상 기업의 비재무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도 사주 일가의 갑질 논란, 직장 내 폭행·괴롭힘, 산업안전조치 소홀 등에 따른 노동자 사망 등 기업에 의한 인권문제가 대두하면서 기업의 인권경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인권위는 "국내의 동향을 볼 때 인권경영은 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됐다"며 "인권침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기업이나 기관은 국제경쟁력을 잃고 생존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만큼 민간 기업 역시 경영활동에 있어 인권적 가치를 기본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광주형 일자리 철회 3년 투쟁"

현대기아차 노조 총파업 돌입

현대·기아자동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 철회를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3년 투쟁'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현대·기아차노조는 이날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함께 공동성명을 내고 "광주형 일자리는 나쁜 일자리와 사회 양극화 확대, 소득불평등 심장을 촉진한다"며 "광주형 일자리 공장이 완공되는 2021년까지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가 반값 연봉으로 전체 노동자 임금을 하락시키고, 지역별 저임금 기업유치 경쟁을 초래해 자동차 산업을 공멸시키는 차킨계임을 유발하는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내 자동차 시장은 이미 포화해 생산시설이 남아돌고 있다"며 "광주형 경차가 내수·수출이 부진해 중도좌초하거나 실패하면 한국 자동차 산업 위기가 가속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새롭게 도약하는
전남도민일보가
능력있는 지역기자를 모집합니다.

고흥, 해남

전화문의: 062)227-0000 / 010-9556-0000 (직통)
팩 스: 062)227-0084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 (유동 33-4) 소석빌딩 5층

사무실 임대

- 지하철 농성역 4번출구 옆
- 화정동 776-12 3층 60평
- 광주버스종합터미널 신세계백화점 금호월드·CGV영화관 인접
- 광주 새우리병원 건너편
- 2층 북교당 한약방 운영중

☎ 062)362-6900

서구 치평동 중흥스카이31 상가 임대

1층 101호 코너자리
전용면적 357.72㎡(108.2평)
보증금 2억원, 월임대료 1천 100만원

108호 전용면적 84.04㎡(25.4평)
보증금 5천만원, 월임대료 250만원

☎ 062)676-0004

나주혁신도시 빛가람 중흥메가티움

상가 125호
상가 201호

전용면적 415.58㎡(125.72평)
(보증금 5천만원, 월임대료 300만원)

☎ 010-4057-7999